



어머님 고마워요

은 상 정희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어머님, 저예요.”

“그래, 어쩐 일이나?”

“어머님, 12월 2일날 회사에 좀 늦게 출근하셔도 돼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뇨.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함께 건강검진 좀 받으시라고 예약해 놔거든요, 태옹씨가 함께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 그래라.”

항상 건강을 장담하시는 70세의 시아버님과, 66세의 시어머님,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렇게 해서 며느리인 저의 고집으로 망설임 여지도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진센터에 처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해 10월 1일, 정확히 작년 10월 1일. 위로 딸 다섯을 낳고 마지막에 귀한 아들 태옹씨를 낳아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며느리인 저를 맞이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시부모님은 그 연세까지도 직장에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홀로 내려오신 시아버님은 일찍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빌딩 전기관리를 하고 계셨으며, 어머님은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 이사를 맡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성격이라,

회사에서 맡고 있는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이곳 저곳을 살피다 손 볼 곳이 있으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성격이십니다.

아무래도 그 연세에 일을 하다 보면 힘에 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어 항상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를 즐거움으로 생활하였기에 언제나 즐겁게 출근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출근복장을 엄격하게 입으시고, 머리까지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직장생활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결혼을 하고 보니, 그렇게 노부부가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건강하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칠십 평생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에 한편으로는 사는 데 바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여기 저기 건강검진센터에 연락을 해 보니, 생각보다 검진비가 터무니없이 비싸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 함께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빼자니, 어느 일간지 기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혈액 검사만 하고, 늘 건강하다고 장담하던 30대 한 직장인이 간암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뻔 수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고민하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를 적고 엔터(ENTER)를 쳐보니, 건강관리협회가 나왔습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니, 검진 내용이 참 실속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측정도 해 준다니 마음이 끌려 무조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그에 비해 검진내용도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 12월 2일 세 분 모두 예약을 하고 나니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건강검진 예약했어.”

“나만?”

“아니? 가족 모두.”

“잘 했다, 한 번 해 드리고 싶었는데... 돈 많이 들었니?”

“아니. 의외로 저렴하더라구.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나는 남편에게 오랜만에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스러운 아내 노릇을 해 보았습니다.

세 분 검진을 받고, 병원 근처에서 점심으로 맛있는 된장찌개를 사 드셨다며,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을 뵈었을

때는 더 행복했습니다.

“우리 새아이가 예약해 놓아서, 검진받고 왔어. 한 번쯤 받아 봐야 하는데… 했는데, 어디 그렇게 쉽게 되나. 근데, 우리 새아이가 해 뵈었다고 받으리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 봤지.”

시아머님께서서는 직장 직원분들에게 여기 저기 자랑을 하시고, 또 시댁의 형님들에게도 모두 자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머느리인 저의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진 결과에 혹시 이상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하다가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좋게 나올 거야.

검진 결과를 보러 오라는 날, 모두를 대표해서 남편이 혼자서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마음이 조금 급해진 저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연락했습니다.

“결과 나왔어?”

“응.”

“뭐래?”

“응, 아버님하고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는 유방정밀검사를 한 번 해 보래.”

“왜? 이상이 있으시대?”

“좀 이상한 게 잡혔대.”

“그래?”

그 날 저녁, 가족들이 퇴근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남편은 낮에 병원

에서 의사 선생님께 들은 결과를 가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어머님은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번에 어깨를 다쳐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유방 쪽에 뭐



가 멍쳐 있다고 해서 보니, 그 땐 지방이라 괜찮다고 하더라.”

그 말씀에는 가족을 달래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병을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이튿날 출근 후, 집 근처 병원에 조직 검사를 예약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은 모두 어머니의 건강에 관심을 안 보이는 척, 외연한 척했지만, 결과 날짜가 다가오자 가족 모두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시 불안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오진일거야. 이번에 결과 나오면,

여러 병원에 가 볼 거야.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초진장 속에 어머니의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은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본인은 물론 모두 그 사실을 납득

할 수 없었고, 나 역시 건강 체크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검진을 권고하였는데, 그게 암이구나. 이를 어쩌하나. 설명절은 다가오는데… 가족 모두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저기 다른 병원을 알아보니, 모두들 명절 후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을 잡아 놓았기에 할 수 없이 시어머니는 설 전에 수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하시어는 어머니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여기 저기 알아 보니, 수술비와 항암치료비, 방사선 치료비를 모두 합해서 최소한 몇천만 원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8평 빌라에서 8식구가 살다가 6남매 모두 결혼시켰는데, 남편은 결혼 몇 달 전에 겨우 수원에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한 번 내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결혼한 후 벌어서 갚아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77

〈다음호에 계속〉